시·도위원장 조기사퇴·전략공천 부활 검토

민주 지방선거기획단, 사퇴 시한 120일→180일 전으로

"혁신안 후퇴" 반발 예고…22일 시도당위원장 논의키로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단장 이춘석 사무총장)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시도당위원장들의 사퇴 시한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폐지된 기초단체장·기초의원 후보자에 대한 중앙당의 전략공천 권한을 일부 되살리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시·도당위원장 조기 사퇴**=현행 민주당 당규는 시·도당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로부터 120일 전까지 위원장직을 사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당내 경선에 필요한 규칙 등은 4개월 이전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 조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도당위원장들이 120일보다 더 이른 18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기초단체장·의원 후보와 광역의원 후보 공천권이 있는 시·도당위원장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출마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기획단 관계자는 14일 "당원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도당위원장이 경선에 나설 경우 유리한 것이 사실"이라며 "심판이 선수로 뛴다는 불공정 논란을 없애기 위해 사퇴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규정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시·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규정 자체를 바꾸는 것은 '타깃 개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당 관계자는 "지금 규정을 바꾼다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시·도당위원장은 당장 다음달까지 그만둬야 하는 셈"이라며 "시·도당위원장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만약 지방선거기획단이 조기 사퇴안을 만들면 이 안건은 최고위원회를 거쳐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최고위에서부터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최고위원 중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날 현재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지방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사람은 박남춘(인천시당위원장), 박범계(대전시당위원장), 이개호(전남도당위원장), 김우남(제주도당위원장) 최고위원 등이다.

◇**기초선거 전략공천**=지방선거기획단은 2015년 김상곤 혁신위원회에서 폐지한 기초단체장·기초의원에 대한 중앙당의 전략공천을 일부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선거기획단 관계자는 "전략공천 규정 미비로 당세 취약지역에 인재를 영입해 추천하고자 할 경우 제약이 생길 수 있다"며 "단수 및 경선후보자 추천만으로 여성 30% 의무추천 규정, 청년후보자 광역 20%, 기초 30% 의무추천 규정, 사무직당직자 지방의원 5명 의무 추천 등 당헌·당규를 준수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천 사고지역이 생길 경우에도 전략공천이 필요하다고 기획단 측은 주장하고 있다. 기획단 내에서는 10% 이내에서 중앙당이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일부 시도당위원장들은 중앙당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전략공천을 폐지했던 혁신안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방분권 취지를 무력화하고 중앙당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단 관계자는 "아직 논의 중인 사안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며 "22일 시도당위원장들의 의견을 듣고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금융실명제 개선 TF 출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및 의원들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 개선 TF 출범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시 불지피는 국민-바른정당 연대

安-劉 협력 논의…21일 국민의당 끝장토론 주목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신임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만나, 정책연대는 물론 선거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히, 유 대표는 이날 '호남 지역주의 탈피' 주장 논란과 관련,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유 대표는 전날 대표 당선 기자간담회에서도 '햇볕정책 폐기' 주장 논란과 관련, "미래를 보고 얘기한 것"이라고 비껴갔다.

하지만, 바른정당과의 연대 및 통합에 대한 호남 의원들의 심리적 거부감은 아직도 상당해 오는 21일 끝장토론 성격의 의원 총회에서 어떠한 합의점이 도출될 것인지 주목된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당 대표실로 취임 인사차 찾아온 유 대표에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기득권 정치를 깨고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라며 "새로운 개혁의 파트너로서 할 수 있는 여러 일에 대해 깊은 논의와 협력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유 대표는 "앞으로 양당 사이의 진지한 협력 가능성을 얘기해보기 위해 방문하게 됐다"며 "바른정당과 많은 부분에서 생각이 일치하고 협력할 부분이 굉장히 넓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대표와 유 대표는 배석자 없이 비공개로 전환된 대화에서 정책연대는 물론 선거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앞서 양당 원내대표끼리 협의한 7개의 정책연대 법안을 계속 추진하고 최저 임금과 공공 일자리 부문만큼은 양당이 협력하기로 뜻을 모으기로 했다.

안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장은 예산과 여러 개혁입법이 현안이지만 공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선거연대 논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선거연대 가능성을 당연히 열어놓고 생각해 보겠다"고 밝힌데 이어 국민의당 호남 중진의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호남 배제' 발언과 관련, "호남 배제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고 지역주의를 탈피하고 극복하자는 얘기였다는 설명을 드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당 호남 의원들은 여전히 바른정당과의 연대 및 통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이고 있다.

박지원 전 대표는 14일 자신의 SNS에서 유승민 대표에게 "YS식 3당 통합 제의는 국민의당에 안 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햇볕정책을 부정하고 호남 지역주의를 거론하는 바른정당과 어떻게 통합을 하며 정치를 함께 할 수 있겠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부분의 호남 의원들은 유승민 대표가 대표 선출 이후,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에 각기 창구를 개설, 통합을 논의하겠다는 주장에 바른정당과의 연대 및 통합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호남 중진들은 21일 의원총회에 앞서 바른정당과의 연대 및 통합에 반대하는 연명 성명서 발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규제프리존·서비스발전법 처리 공감

민주-국민의당 본격 추진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안의 국회 처리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들 법안의 경우 박근혜 정부 당시 새누리당이 지난 2016년 발의해 법안제정이 추진됐으나, '악법'으로 규정한 야권 반발로 지난 2년간 국회에서 계류 중이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두 법안을 손질해 공동발의 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김 정책위의장과 김동철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만나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국민의당 김경진 원내대변인이 14일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난 정부부터 논란이 있었는데 의료부문이 들어가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다. 당시 민주당이 만든 안을 기본으로 적극적으로 협의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법안 처리를 위한 실무공동협의체를 꾸리고 양당이 일부 독소조항을 제외하고서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해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의 경우 의료민영화와 같은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을 뺀 안을 민주당이 준비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내부적으로 준비해온 안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양당이 두 법안을 공동발의해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자유한국당은 최초발의한 입장이고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정부 '종교활동비' 비과세 할 듯

확정안 이르면 주중 발표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종교활동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확정해 이르면 이번 주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주재로 열린 '종교인 과세 관련 기재부-종교계 간담회'에 참석해 "기준에 따라서 개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정책관은 "종교활동비와 관련해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방안을)확정해서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까지는 발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저희가 느끼기로는 (종교인 과세)시행은 불가피하다"면서 "시행은 하되, 종교인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이어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국세청 훈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난색을 보였다"면서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자기수정의 기회를 드리겠다는 것이 국세청 입장"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박정희 카드' 꺼낸 한국당

업적 부각해 지지층 결집·보수 적통 선점 의지

자유한국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부각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인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의 근대화 업적을 부각시키면서 "정부·여당의 '박정희 근대화 역사 패싱', '새마을 운동 지우기'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보수 지지층 결집을 이뤄내고, 이를 바탕으로 여권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맞서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또한, 바른정당과의 보수 적통 경쟁에서 우위에 서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 시절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경부고속도로 완공, 새마을운동 등의 성과를 열거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1979년 서거할 때까지 1인당 국민소득을 20배 늘렸고, 3만 달러 소득시대의 기반을 닦았다"고 평가했다.

한편, 바른정당은 한국당의 보수적통 내세우기를 비판하며 견제구를 던졌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홍준표 대표가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은 걸고 '이명박근혜' 사진은 안 걸고 내리겠다고 했다"며 "이는 보수의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는 뜻으로, 역사에 대한 패륜이자 망나니 보수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3년 (1954~2017)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대학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특별전형

① 원서접수 : 2017. 11. 21(화) ~ 11. 29(수)

② 전 형 일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전형일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45	2017. 12. 1(금) 오후 2:30

■일반전형

① 원서접수 : 2017. 12. 1(금) ~ 12. 12(화)

② 전 형 일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전형일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0	2017. 12. 15(금) 오후 2:30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Ph.D.)	6	2017. 12. 15(금) 오전 9:40
		목회학과(D.Min.)	2	2017. 12. 15(금) 오전 9:40
		유아교육학과(D.Ed.)	5	2017. 12. 16(토) 오후 2:40
		사회복지학과(D.S.W.)	5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5	
	석박사통합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0	
	석사	신학과(Th.M.)	25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A.)	20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집단위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정 시
인문	신 학 과	18
	국제한국어교원학과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
사범	유아교육과	2
예능	음 악 학 과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5
	실용음악학과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4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7. 12. 30(토) ~ 2018. 1. 2(화)
• 전형일 : 2018. 1. 9(화)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